■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13-440.
http://doi.org/10.17948/kcs.2022..97.413

기독교 선교와 동요 번역*
—李一來의 『朝鮮童謠作曲集』을 중심으로—

강영미(康泳美)**

목 차

1. 서론
2. 호주 선교사와 조선어 교사
3. 『조선동요작곡집』의 특징
4. 결론

국문초록

『朝鮮童謠作曲集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1938)은 조선인 이일래가 작사·작곡을 하고, 호주 선교사 에스몬드 뉴(Esmond W. New, 柳永完, 1900-1982) 목사가 삽화를 그리고 앤 뉴(Annie Fitzroy McNair. New, 柳安禮)가 가사를 번역하는 협업의 방식으로 마산에서 출간한 그림동요곡집이다. 이일래의 창작곡에 맞춰 호주 선교사 부부가 조선의 풍광, 풍습, 복식의 특징을 삽화로 그리고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가 환기하는 의미를 영문으로 의역한 텍스트다.

마산은 선교 주체인 호주인 선교사와 선교 대상인 조선인이 교류하며 소통하는 문화 생산의 공간이자, 식민자 일본인이 조선인과 선교사를 감시하고 생산물을 검열한 통제의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선교사 부부와 그들의 조선어 교사가 공동 출간한 『조선동요작곡집』은 조선의 어린이를 위해 창작한 동요를 모은 그림동요곡집이자 조선의 노래를 삽화와 영문으로 옮겨 서양에 알린 문화 번역서였다. 선교지에서의 활동을 선교 본국에 전하는 보고서이자 호주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홍보용 자료이기도 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092)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조선동요작곡집』(1938)은 국내외 독자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제작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강신명이 조선의 주일학교 교사용으로 발간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1936), 임홍은이 조선의 어린이를 위해 삽화, 동시, 동요, 동화, 만화 등을 두루 수록하여 발간한 『아기네동산』(1938)과 대상 독자층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1930년대에는 농민생활사, 아이생활사, 조선기독교서회 같은 기독교계 출판사가 다양한 독자층을 염두에 둔 동요곡집을 발행하여 이후 다양한 형태의 동요곡집이 발간되는 초석을 놓았고 조선의 동요곡집이 해외로 유포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방 이후 글과 그림과 노래가 한데 모인 종합 텍스트로서의 동요곡집이 발간되는 계기도 제공했다.

주제어: 이일래, 에스몬드 뉴(유영완), 앤 뉴(유안례), 호주 선교사, 『조선동요작곡집』, 삽화, 번역.

1. 서론

이 연구는 『조선동요작곡집』의 기획 의도와 구성 방식, 판매 방식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통해 마산 지역의 호주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 이일래의 창작곡을 영문으로 번역한 취지를 살피고자 한다. 해외의 동요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1920년대 중후반부터이나[1] 조선의 창작동요가 해외로 역유입된 것은 1938년의 『조선동요작곡집』이 그 시초로 보인다. 『조선동요곡집』은 이일래가 작곡한 21곡의 가사에 맞춰 호주 선교사 에스몬드 뉴(Esmond Walter Cecil New, 柳永完, 1900-1982, 이후 유영완으로 표기) 목사가 삽화를 그리고, 그의 부인 앤 뉴(Annie Fitzroy McNair. New, 柳安禮, 이후 유안례로 표기)가 영문으로 가사를 번역한 그림동요곡집이다.

『조선동요작곡집』은 1938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1975년까지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에 대한 연구도 드물었다. 1975년 복간 영인본이 발간되어 신문 기사와 잡지 인터뷰 등을 통해 〈산토끼〉의 창작자가 이일래로 알려지면서 그의 전기적 이력, 동요의 음악적 특징을[2] 밝힌 연구가 나왔으나,

1) 고장환, 『세계소년문학집』, 경성: 박문서관, 1927; 문병찬, 『세계일주동요집』, 영창서관, 1927.
2) 김봉희는 이일래의 창작곡 13편의 문학적 특징을 분석했고, 이지연은 「이일래의 『조선동요작곡집』 연구」에서 이일래의 생애와 수록곡 21곡 전체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했다. 김봉희, 「이일래 동요 연구」, 『지역문화연구』 3,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8; 이지연, 「이일래의 『조선동요작곡집』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0.

호주 선교사 부부가 조선어와 영어 가사를 병기하고 삽화까지 삽입하여 『조선동요작곡집』을 발간한 의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일제의 검열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조선동요작곡집』이 소실되어 텍스트를 접할 수 없었고, 창작자 이일래가 1940년대 이후 동요계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호주 선교부가 1914년부터 1942년까지의 한정된 시기에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다 조선을 떠난 점이 연구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한반도 전 영역에서 활동한 미국과 캐나다 선교부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축적된 반면 경남의 국한된 지역에서 활동한 호주 선교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 양명득 박사를 통해,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 여선교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듣고 관련 자료를 추적할 수 있었다.[3)]

『조선동요작곡집』의 기획 발간 취지를 살피기 위해, 2장에서는 호주 선교부가 조선의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 유영완 목사 부부가 선교지 마산에서 그들의 조선어 교사인 이일래와 함께 활동한 양상을 살핀다. 3장에서는 『조선동요작곡집』의 판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계의 자장 속에서 『조선동요작곡집』을 출간하게 된 과정, 유영완 목사가 그린 삽화의 특징, 유안례가 번역한 영문 가사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동요작곡집』을 제작한 의도와 해외로 유포한 양상, 번안 동요를 국내에 소개하던 상황에서 『조선동요작곡집』을 해외에 소개한 맥락과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2. 호주 선교사와 조선어 교사

식민지 시기 조선에 머물던 해외 선교부는 선교지역 분할 정책에 따라 각 지역을 할당하여 선교했다.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부, 평안도・강원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북도는 미국 선교부, 경상남도는 호주 선교부가 관할했다([그림 1]).[4)]



[그림 1] 호주 선교지

3) 각주 27번 참고.

영국의 울프(J. H. Wolfe) 주교는 영국에서 재정적 지원이 끊겨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되자 영연방 소속인 호주의 빅토리아주 장로교에 선교 지원을 요청한다. 이에 응한 빅토리아주의 장로교가 1889년 데이비스(J. H. Davies) 목사를 파송하면서, 조선에서 호주 선교부가 활동하게 된다.[5]

미국 선교부가 철수한 1914년부터 경남 지역을 관할한 호주 선교부는 부산진, 진주, 마산, 통영, 거창 지역을 거점으로[6] 조선 사회에서 소외된 천민, 여성, 어린이, 나환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로부터의 선교 활동을 했다.[7] 진주 배돈 병원, 통영의 시약소 등을 운영하며 의료 선교를 하고 마산에 창신학교, 의신학교, 마산여자야학교 등을 설립하여 청년과 여성을 교육했다.

경남노회는 1928년에 농촌부를 만들고, 호주 선교협의회의가 산업농장을 준비하기로 한 1932년의 결정에 따라, 한국장로교가 정한 농촌 지도력 훈련, 농촌 성인 교육, 자료 출판이라는 목표를 수행했다. 1933년에 마산의 창신학교 건물에서 복음농업실수학교(Gospel Practical Farm School)를 열어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고 농법을 개발했다. '실천에서 이론으로'를 교육 목표로 삼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18-25세의 남자를 교육했으며 당시 농촌에 만연한 비관주의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노래 교육을 강화했다.[8] 여기서 음악교육을 담당한 이가 이일래다.

이일래는 1903년 마산에서 출생하여 마산 창신학교[9], 서울 중동중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10] 김영환에게 2년간 바이올린을

4) [그림 1], 백낙준, 『백낙준 전집 1_한국 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95. 뒷 표지 앞면의 지도.
5)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창신 90년사』,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1998, 73면.
6) 에디스 커・조지 앤더슨, 양명득 편역, 『호주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 1889-1941』, 동연, 2017, 160면.
7) 호주 선교부의 아래로부터의 활동은 1940년대 초까지 이어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끊어졌다가, 1964년부터 멜버른의 리처드 우튼 목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어 영등포산업선교회로 부임하면서 호주 선교사와 영등포산업선교회와의 협력관계가 다시 시작된다. 에디스 커・조지 앤더슨, 양명득 편역, 「현재와 미래의 뿌리를 찾아서」, 앞의 책, 18-20면.
8) 정병준, 앞의 책, 277-278면. Edith A. Kerr, *(The)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경건, 2015, 115면.
9) 이일래는 마산창신학교 초등과 5회, 고등과 5회 졸업생 출신이다.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창신 90년사』,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1998, 117면.

배운 후 마산창신학교(1924), 이방공립보통학교(1928), 마산의 복음농업실수학교의 음악교사(1930)로 재직했다. 마산창신학교에 근무할 당시 각색, 연출, 감독을 맡아 창신학교, 의신여학교 학생들과 공연한 〈레 미제라블〉이 반일 감정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개월 간 수감된 바 있다.[11] 1928년 8월에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정기대회에 참여한 사실이 경성지방법원에 보고되었다.[12] 당시 일제는 이일래가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한 공연,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한 청년연합회 활동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가 〈산토끼〉를 개사하여 부른 일까지[13] 문제 삼으며 기독교계 청년 교사의 활동을 통제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이일래는 마산 지역의 호주 선교사업부의 자장 속에서 복음농업실수학교의 음악교사로(1930), 호주 선교사 부부의 조선어 교사(1936-1939)로, 문창교회 성가대의 지휘자(1936-1945)로 활동하며 동요를 창작했다.

유영완은[14] 부인 유안례와 함께 1934년에 조선에 들어와 호주선교위원회의

10) 이일래는 당시 음대가 없던 연희전문의 수물과(현 수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에 중퇴한 후 마산으로 귀향한다. 금수현과의 대담에서 그는 서울의 중동중학교를 마칠 무렵, 천도교 강당 낙성식에서 김영환의 독주회를 접하면서 음악을 접하게 되었으며, 김영환에게 음악을 배우기 위해 연희전문에 입학했으며, 김영환, 홍난파와 함께 YMCA에서 트리오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40년 후반에는 일본대학 예술학원 음악과에서 1년간 공부한 후, 마산여자 가정학원을 설립했으나 1943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자 만주로 건너가 1944년 만주에서 해방을 맞는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CIC 마산 대장의 통역을 담당했다. 김종문,「남도의 예_향토 출신 예술인의 작품세계와 그 생애—이일래_하」,『경남일보』, 1986.11.3.; 금수현,「동요 '산토끼'의 주인공 이일래 옹」,『월간음악』51, 월간음악사, 1975.2.

11) 〈레 미제라블〉의 공연 일자는 1924년 12월 24일이다.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17면.

12) 1928년 8월에는 중앙기독교청년회, 동아일보사,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정기대회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문서에 이일래의 이름이 있다. 동대문경찰서장은 '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 연합하령 순서, 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정기대회 순서, 여자기독교청년회 정기대회보고사항'까지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장에게 보냈다.「第2回 男女學生基督教青年會 聯合夏令會 開催건 報告」,『學生盟休에 關한 情報綴』(京東警高祕第1357號 1, 1928.8.31.)「馬山예수教會는 朝鮮예수교長老教會를 이탈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하고 教會 獨立을 선언하다」,『동아일보』, 1928.1.18.

13) 거창 지역 유치원 교사 공덕귀가 '근회반도'라고 개사하여 부른 〈산토끼〉의 가사가 조선 땅을 상징한다며, 일경이 창작자 이일래를 찾아와 창작 의도를 물은 바 있다. 전정희,「암울한 시대 태어난 '산토끼' 민족 계몽의 심장을 깨우다」,『국민일보』, 2021.6.4.

14) 에스몬드 뉴는 1900년 영국 켄트주 브롬리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 때 왕립 공군과 왕립 해군에서 복무한 후 호주로 이주한다.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버른 대학의 Ormond College에서

마산지역 선출 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들의 농업교육[15]과 주일학교 활동에 공을 들였다. 교회 행사와 주일학교의 수업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포스터와 전도지를 만들어 문맹자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1938년에는 "호주장로교선교회 한국선교 50주년"[16] 행사의 담당자로서[17] 『조선동요작곡집』을 기획 제작하여 경남노회 종교교육부[18]에서 출간했다.

유안례는 마산 선교지부의 서기를 담당하며 유치원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처한 자연환경 및 의식주 상태, 교육 방식 및 놀이 문화, 어린이의 입말의 특징 등을 접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동요 번역 과정에 녹여냈다. 도착언어에 초점을 두고 동요 가사의 문맥과 정황을 번역

신학 공부를 하여 1934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의 호주 장로교 선교부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1939년에 호주로 간 후에는 멜버른 기술대학(Melbourne Technical College)에서 그림을 공부하며 목사로 활동하다가 1942년에는 호주 공군의 군목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어에 능통하여 조선에 격추된 조종사의 사망을 확인하는 수색 작업도 수행했다. 1946년부터 1951년까지는 멜버른의 St. Kilda 장로교회, 싱가폴, 말라야 등에서 극동 공군의 군목으로 활동하다가 1952년 호주로 돌아와 빅토리아 주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 The Messenger 편집부, *The Messenger*, Australia, 1939.10.20.; Esmond W. New, *Not a Dull Moment*, Ocean Grove, Vic., 1978; Steve Eather, 'New, Esmond Walter (1900-1982)',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National Centre of Bi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2.

15) 호주장로회는 1935년 학교의 운영권을 경남노회로 이관시켰다. 권리 이양이 호주선교회의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농촌운동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경남노회의 교육위원회는 1937년 2월, 농장의 학교를 대지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마산의 두 블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식 명칭을 복음농장실용학교로 정했다. 선교사를 고문으로 임명해 달라는 교장의 요청에 따라 유영완 목사가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 교장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6) 에디스 커・조지 앤더슨, 양명득 편역, 앞의 책, 73면.

17) 「Commitees of Council, Elected June 1938」에는 유영완 목사와 부인 유안례가 1938년에 담당한 직책과 역할이 소개돼 있다. 이들이 담당한 일은 Excutive, Gospel Farm School(3년), Youth, Auditor, Jubiliee, Godifying Council Rules, C. L. S, Publicity, Federal Council Delegates(F.M.C) 등이다.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Extracts from the Records of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Vol. 25,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 1939, pp.Ⅱ-Ⅲ.

18) 유영완이 The Presbytery Christian Literature Committee와 협력하여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에서 인쇄 및 판매한 책과 학업 사진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는 기록은 『조선동요작곡집』 출간 과정을 뜻하는 듯하다. "The Rev. Esmond New, working in conjunction with the Presbytery Christian Literature Committee, produced books and pictures of school work which were printed and sold by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Edith A. Kerr, 『(The)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경건, 2015, 188면; 에디스 커・조지 앤더슨, 양명득 편역, 앞의 책, 200-201면.

하여 비조선인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식민지시기 조선에 파견된 여성 선교사나 선교사 부인들이 유치원, 주일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며 문서 사역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듯, 유안례에 대해서도『조선동요작곡집』을 번역한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의 활동은 유영완이 1978년 호주에서 출간한『Not a dull moment』의 12장[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2장의 제목을「예술 색채 생활(ART COLOURS LIFE)」로 짓고 [그림 2]를 삽입하여, 그림을 매개로 조선에서 선교했음을 강조했다. [그림 2]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조선 남자와 어린이를 그리는 유영완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조선인은 피사체가 되어 수동적으로 서 있고 유영완은 붓을 들고 대상의 '외양'을 재현한다. "대상을 재현하는 주체로서의 선교사와 재현되는 객체로서의 현지인"[20]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조선동요작곡집』에 그린 삽화도 대부분 조선의 자연 경관, 주거 시설, 복장 등의 겉모습이었다.



[그림 2] 유영완의 자화상

유영완은 그림과 함께 선교지 조선에서 일상적으로 겪은 일제의 감시와 검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가족 휴가를 간 지리산의 풍광을 그리다 일본 경찰에게 제지당한 일, 집 밖의 풍광을 기억해서 집 안에서 그린 일까지 스파이의 행동으로 오해받은 일, 교회 전단지와 행사 포스터에 그린 삽화 수백 장을 압수당한 일 등을 기록했다. 찬송가 〈Rock of Ages〉의 내용을 포스터로 그려 제목을 붙인 〈만세 반석〉이 '조선이 만년을 이겨낸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된 일화도 전했다. 찬송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 선교의 대중화 전략이 일제에게는 반일 사상의 전파 전략으로 해석된 것이다.

---

19) Esmond W. New, *Ibid*, pp.73-77.
20) 한강희,「내한 선교사들은 정말로 오리엔탈리스트였나?」,『선교와 신학』46,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연구원, 2018, 424면.

『조선동요작곡집』의 출간기념식을 할 때도 기념식을 빨리 끝내는 외양을 취해 참석한 경찰을 내보낸 후, 되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애국 회의를 진행한 방식도 회고한다. 유영완에게는 『조선동요작곡집』의 호주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가 조선인에게는 다른 목적을 위해 모이는 자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진술한다. 호주장로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빅토리아주의 교회를 다녀온 이약신 목사가 유영완 목사를 방문했다가 급히 피신한 에피소드를 통해 일경이 조선인 목사와 호주 선교사 간의 교류까지 통제했던 일화도 전한다. 당시 일제는 선교사를 침략 기회를 엿보는 자에게 조선의 정보를 전하는 스파이라고[21] 인식하고 있었기에 선교사를 매개로 국내외의 정보가 소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처럼 마산은 선교 주체인 호주인 선교사와 선교 대상인 조선인이 교류하며 소통하는 문화 생산의 공간이자, 식민자 일본인이 조선인과 선교사를 감시하고 생산물을 검열한 통제의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선교사 부부와 그들의 조선어 교사가 공동 출간[22] 『조선동요작곡집』은 조선의 어린이를 위해 창작한 동요를 모은 그림동요곡집이자 조선의 노래를 삽화와 영문으로 옮겨 서양에 알리는 문화 번역서였다. 선교지에서의 활동을 선교 본국에 전하는 보고서이자 호주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홍보 자료이기도 했다. 이렇듯 중첩적인 의미를 지닌 텍스트가 생산된 방식은 3장에서 살핀다.

---

21) 육영수,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 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1890년대」, 『역사민속학』 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14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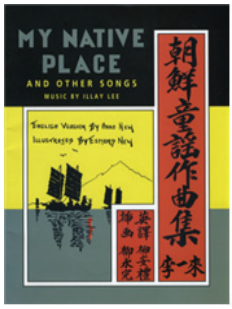
22) "In order to help the children with their singing, my wife and I and our language teacher produced a song book. The songs were written by various Korean authors. My wife and language teacher worked out the music, then Anne translated the songs into English while I did the sketches. To this day, although the book has gone into several editions, I have not been able to get any copies in Australia. Hundreds have been sent out of Korea and they have all disappeared. Just why, I probably will never find out." Esmond W. New, *Ibid,* pp.74-75.

3.『조선동요작곡집』의 특징

1) 초판본과 재판본의 특징

유영완은『조선동요작곡집』의 초판본과 재판본의 표지와 속표지, 이은상과 아펜젤러의 서문, 차례와 본문을 동일하게 배치하되, 출간처, 출간 목표, 대상 독자에 따라 저작 겸 발행인, 책값을 다르게 설정했다. 각 판본의 동일한 부분을 먼저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지와 속표지는 판본마다 동일하다.『조선동요작곡집』의 1938년 초판, 1939년 재판, 1975년 복간본의 겉표지에는 제목, 작곡가, 번역가, 삽화가의 이름을 영문과 한문으로 두 차례 써 놓았다. 영문 독자와 한문 독자를 동시에 염두에 둔 구성안이다. 겉표지에는 영문 표제인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를 가로로 배치하고, 한문 표제인『朝鮮童謠作曲集』은 세로로 배치했다. 영문 제목만으로는 이 책이 한글로 된『조선동요곡집』임을 알기 어렵다. 속표지에도 동일한 정보를 수록하되, 한문 표제 다음에 영문 표제를 적고 '한국의 마산에서 1938년'에 발행했다는 정보를 추가해 놓았다.



[그림 3] 겉표지



[그림 4] 속표지

겉표지의 [그림 3]에는 해가 뜨는 강 위의 배와 뱃사공의 모습을, 속표지의 [그림 4]에는 흰 한복을 입은 지게꾼이 지리산을 오르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표지와 속표지에는 한글 표기가 없다. 본문의 악보에 수록된 가사를 확인해야만 한글로 된 그림동요곡집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은상과 앨리스 아펜젤러가 쓴 서문도 판본마다 동일하다. 마산 출신의 시조시인이자 이일래의 친지인 이은상의 한글「序」와 이화대학의 6대 교장인 앨리스 아펜젤러의 영문 서문을 순차적으로 수록했다. 이은상은

가사와 곡조가 우수한 동요가 창작되기를 바라던 차에 "馬山에 숨은 關心者 李一來"가 만든 동요가 어린이의 동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 아펜젤러는 미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조선에서 유영완, 유안례, 이일래가 크리스토퍼 로빈[23]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그림동화책 『곰돌이 푸』(1926)의 주인공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두 텍스트의 공통점이 어린이용 그림책임을 드러냈다. 이은상은 국내 독자에게 이일래의 동요를 소개하고, 아펜젤러는 해외의 독자에게 『조선동요작곡집』이 어린이 그림책이고 공저자가 세 명이라고 안내했다. 국문 서문과 영문 서문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국내외의 독자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출간했음을 밝혔다.



[그림 5] 이은상 「서」



[그림 6] 영문 머리말

이은상의 「序」 위에는 해 돋는 강가를 그린 [그림 5]를 배치하고 아펜젤러의 글 위에는 「EWHA COLLEGE」라는 제목의 [그림 6]을 배치했다. 겉표지와 이은상의 서문에는 해 뜨는 강가의 배를, 속표지와 아펜젤러의 서문에는 지리산의 지게꾼과 이화대학 성문을 지나는 수레꾼을 그려 놓았다. 선교사가 만든 '고요한 아침의 나라'[24]라는 조선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선교사가 만든 여자대학이 조선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23) 클리스토퍼 로빈은 곰돌이 푸의 친구다. 영국 작가 밀른(A. A. Milne)이 글을 쓰고 쉐퍼드(E. H. Shepard)가 삽화를 그린 동화책 『곰돌이 푸(Winnie-the-Pooh』(1926)에 나오는 인물이다.

24)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퍼시벌 로웰이 1886년 미국에서 발간한 책의 제목이자 새비지 랜드가 1896년 런던에서 발간한 조선 소개서의 제목이며 그리피스가 1907년 개정 출판한 『은자의 나라 한국』 8판의 별칭이다. 이처럼 서양 선교사들은 책 제목과 그림 등으로 조선에 대한 이미지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반복 복제해 왔다. 이향순, 「미국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확장」, 『선교와 신학』 12,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연구원, 2003, 219면.

셋째, 국문과 영문으로 된 차례, 한글 가사와 영문 번역문을 수록한 본문도 판본마다 동일하다. 영문 차례에만 색인(index)을 추가하여 속표지 그림이 '지리산 가는 길'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서」를 쓴 필자를 소개하고, 맨 뒷면에 첫돌 의상을 입은 조선 아기 그림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영문 색인을 만들어 해외 독자가 조선의 작가와 복식과 지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했다.

판본에 따라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 앞면의 책 판매처와 가격을 바꿨다. 초판본에는 책 판매금의 사용처와 책 구입처를 써 놓았으나[25] 재판본에는 책의 발행처만 밝혀 놓았다. 초판본에는 '이 책의 판매 수익은 종교교육문헌 출판에 사용하며, 조선에서는 마산의 에스몬드 뉴 목사에게서, 호주에서는 멜버른 콜린가 156의 매튜[26] 목사에게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1.20'이라고 써 놓았다. 당시 경제적 불황과 해외 선교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어려움이 많자[27] 호주 해외 선교위원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매튜 목사가 멜버른 지역의 평신도들에게『조선동요작곡집』을 판매하여 재정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28] 재판본에는

25) "Copies may be obtained from Rev E W New Kyumasan Chosen, Japan. Price ¥1.20. In Austealia from Rev H C Mattew M A 156 Collins Street Mellboerne 01." 이 주소지에는 스코츠 교회(Scots Church)가 있다. 스코츠 교회는 한국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안수를 받은 곳이자, 그의 순교 기념 예배를 진행한 곳이다. 정병준, 앞의 책, 51면.

26) 매튜(Henry Charles Matthew, 1871-1953)는 이 주소지에 소재한 스코츠 교회의 목사로『조선동요작곡집』의 구매 담당을 맡았다. 그는 1923년 해외선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1925년 해외선교위원회 총무로 임명되어 1928년 7월 한국을 방문하여 경남의 5개 선교지부를 방문했다. 1937년의 호주장로교 100주년 기념대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한국 선교지에서 초빙한 이약신 목사의 호스트 역할을 하며 숙식을 제공하며 1939년까지 조선 선교를 위해 활동했다. 정병준, 앞의 책, 267-271면; 옥성득,「이약신 목사 생애 1, 1937년 호주 방문까지」,『옥성득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블로그.

27) 양명득 목사는 2022년 7월 5일자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는 1889년부터 조선 경남도에 선교사를 보내 학교 병원 교회 등을 설립했다. 당시는 1차대전과 경제대공황이 진행되던 시기였음에도, 빅토리아주의 여선교연합회가 모금을 통해 후원했기에 경남도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야 했기에, 선교 초기부터 빅토리아주의 시골 구석구석에 한국을 알렸고 선교사들이 휴가차 호주에 올 때는 한복, 공예품, 조각품, 태극기 등을 가져와 보여주었으며, 한국 역사와 자신들이 하던 선교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호주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공부도 했다고 한다. 뉴 선교사가『조선동요작곡집』을 출판하여 호주에 유입한 것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정병준, 앞의 책, 289-295면.

‘재판을 조선기독교서회(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에서 출판했으며 가격은 ¥0.60’이라고 써 놓았다.[29] 재판본의 가격은 초판본의 반으로 내려 조선 내에서 대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출간처를 바꿨다. 이에 따라 초판본에서 통합한 저작 겸 발행인을 재판본에서는 분리했다. 초판본은 유영완 목사가 활동하던 경남노회 종교교육부에서 출판했기에 “著作 兼 發行人 柳永完”으로 표기했으나 재판본은 경성의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출판했기에 발행자는 조선기독교서회[30]의 기관장인 “美國人 密義斗”[31]로, 저작자는 “濠洲人 柳永完”으로 분리하여 국적과 조선 이름을 표기했다. 조선기독교서회는 국적과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 서적을 출간했기에, 『조선동요작곡집』의 출간에 참여한 이들의 국적을 특정한 듯하다. 저작자 이름에 ‘조선인 이일래’가 아닌 ‘호주인 유영완’을 쓴 것이 특이하다.

셋째, 재판본 가격을 초판본의 반값으로 내렸다. 초판본은 1원 20전에 판매했으나 재판은 60전에 판매했다. 초판본은 이일래가 창작한 동요를 유영완 목사가 악보로 그려서[32] 일본에 보내 동판으로 제작했다.[33] 동판으로 제작한 40여 편의 악보 중 21편을 골라 마산의 경남노회 종교교육부에서 초판본을 출판하고 1년 후 경성의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초판본 그대로 재판본을 출판했다. 초판에서 세 군데만 수정했기에 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

29) “Second Printings. Published by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Price ¥0.60.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Chongno Seoul Korea.”

30) 1890-1906년 조선셩교셔회(朝鮮聖教書會, The Korean Religious Track Society), 1907-1938년 조선예수교서회(朝鮮耶蘇教書會,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39-1947년 '조선기독교서회(朝鮮基督教書會)', 해방 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기독교서회(大韓基督教書會)로 이름을 바꿨다. 〈대한기독교서회 홈페이지〉

31) 본명은 Edward H. Miller다.

32) “생각나는 대로 곡을 쓰면 그림을 잘 그리는 호주 선교사가 자기 손으로 악보를 그려 주었지요. 그것을 일본에 보내서 동판으로 만들어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0곡이 되었을 때 서울에 왔더니 기독교서회에서 내어 줍디다.” 금수현, 앞의 글, 38면.

33) 요코하마 후쿠인 출판사에서 『한영자전』 등의 활판을 제작했던 것으로(이숙, 「게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공동 번역자로 활동한 이창직」, 『기독교 사상』 729, 대한기독교서회, 2019, 141면.) 미루어, 기독교 서적을 인쇄하던 일본의 인쇄소에 대한 정보를 선교사들이 공유하고 있었기에, 유영완 역시 이일래의 악보를 일본으로 보내 동판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이 탄탄한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전국적 유통망을 통해 보급했기에 책값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1975년의 영인 복간본에는 이은상의 「다시 책 머리에」와 이일래의 「자서」,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이흥렬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장 나운영의 「축사」, 발행인 김원룡의 「꼬리말」을 추가했다. 초판과 재판에 없던 「자서」를 영인 복간본에서야 쓴 이일래는『조선동요작곡집』에 수록된 〈산토끼〉가 어린이들에게 널리 불린 것만으로 만족하며, "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英語로 번역해 주신 멀리 오스트리아에 계신 「에스먼드 뉴-」씨 內外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동요의 작사·작곡자인 이일래의 「자서」가 복간 영인본에 처음 실린 것이다. 초판본의 악보를 검수하고 복간본의 「축사」를 쓴 이흥렬[34]은 "파묻혀 없어질 번했던 옛 노래들이 새로운 脚光"을 받게 되고, 나운영은 "저질가요나 CM송 때문에 어린이들이 병들기 쉬운 이때" 〈산토끼〉, 〈시편23〉 등이 수록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발행인 김원룡은 "선교사 부부의 주선으로 간신히 나온 이 책"을 영인본으로 복간하면서 이일래를 〈산토끼〉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등을 창작한『조선동요작곡집』의 "지은이"로 밝혀 놓았다. 출판 정보에서 유영완이 차지한 저작자의 자리에 이일래가 비로소 들어서게 됐다. 1995년에는 이일래의 아들 이명학이 1975년 판본 그대로 4판을 비매품으로 발행하고 「인사말」[35]만 추가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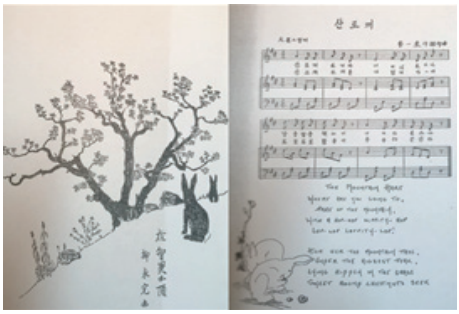
2) 에스몬드 뉴(유영완)의 삽화

유영완은『조선동요작곡집』의 기획, 제작뿐만 아니라『조선동요작곡집』의 겉표지, 속표지, 본문의 악보 등에 삽화를 그려 넣었다. 동요 가사를 구체화하는 그림을 넣어 조선어로 '듣는' 노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

34) 이흥렬은 이은상이 가사를 쓴 21편을 작곡하여 동요극집『꽃동산』(녹양음악사, 1937)을 만든 바 있다. 그 인연으로 이은상의 친척인 이일래의『조선동요작곡집』의 악보를 감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35) 한국문학관협회, 「동요 '산토끼'가 수록된『조선동요작곡집』(영인본, 1975년)의 저자 이일래 동요 작사·작곡가(1903-1978)」, 〈창원 경남문학관〉, 2020.7.29.



[그림 7] 〈산토끼〉 악보와 삽화

『조선동요작곡집』의 본문은 [그림 7]처럼 구성했다. 동요 가사에 해당하는 그림을 먼저 배치하고 다음 면에 악보와 한글 가사를, 그 하단에 영문 번역문을 수록했다. 삽화는 악보의 상단에 제목과 함께 그리거나([그림 8-10]), 악보 하단의 영문 가사 옆에 따로 배치하거나([그림 11-13]), 맨 뒤의 출판사항 위에도 그려 놓았다([그림 14]).



[그림 8] 〈해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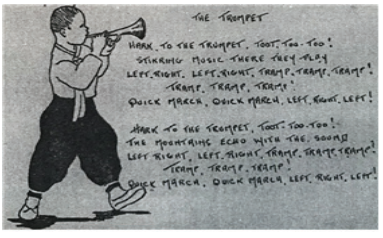


[그림 9] 〈외딴집〉



[그림 10] 〈오빠 생각〉

[그림 8]은 해바라기를 하루종일 들여다보는 소녀의 모습을 그려 가사의 내용을 시각화하고, [그림 9]는 엄마와 딸이 사는 지리산의 외딴집의 우물과 장독대 모습을 묘사하고 [그림 10]은 서울에 가서 소식이 없는 오빠를 기다리는 누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인물의 복장, 주거 환경, 계절의 특징을 환기했다.



[그림 11] 〈병정 나팔〉



[그림 12] 〈연 날리기〉

[그림 11]은 나팔을 부는 소년의 모습을, [그림 12]는 연 날리는 소년의 모습을 그려 조선 어린이의 의상과 놀이 문화를 짐작게 했다. 한글이나 영어 가사를 읽지 않더라도 삽화만 보고도 조선 어린이의 놀이 문화를 통해 일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 조선 동요곡의 가사를 비조선인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3]은 복건을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색동저고리에 노리개를 차고, 바지에 대님을 매고 고무신을 신은 채 집 떠난 제비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모습이다. 제비를 그리워하는 어린이의 내면보다 어린이가 입은 복식을 세밀하게 그려 서구인에게 조선 복식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14]는『조선동요작곡집』의 맨 뒷면에 부록으로 수록한 그림이다. 영문판 목차에만 "Plate, Korean baby in first birthday costume"라는 제목을 붙여 놓아 서양인이 조선 아기의 돌옷을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림 15]는 출판사항 위에 배치한 그림이다. 아기를 업은 소녀가 학교에 가는 여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남녀 아기와 어린이, 소녀와 여학생의 복장을 세밀하게 그림으로써, 어린 소녀는 아기를 돌보느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부 여성만 근대 교육을 받던 조선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시 아동잡지나 화집의 경우 그림은 크게 표화, 비화(扉畵), 목차화, 삽화(동요, 동화 등) 순으로 편집 체계를 갖추었"[36]는데 유영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페이지마다 삽화를 그려 넣되, 동요곡과 별개로 부록 형태로 [그림 14]를

삽입하여 조선 아기의 돌옷을 소개하고, 출판 정보를 제시한 맨 뒷면의 상단에까지 여학생과 소녀와 아기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그림 15]). 삽화 속 인물이 모두 한복을 입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1936에 강신명이 편찬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1938년에 임홍은이 편찬한 『아기네동산』의 삽화에 한복과 양복 의상을 섞어 그린 것과 대조된다.

유영완은 표지와 속표지, 판매처, 안내문, 출판사항, 삽화 9곳에 본인의 조선 이름을 한문으로 써놓는 방식으로 자신이 『朝鮮童謠作曲集』의 기획 및 제작했음을 강조했다. 주일학교 홍보용 전도지인 [그림 16][37]과 1939년의 크리스마스 씰의 도안인 [그림 17][38]에도 "柳永完"을 적고 낙관을 찍어 놓았다. 씰의 오른쪽 아래의 수풀 사이에는 영문 이름 "Esmond W. New"를 적어 놓았다.



[그림 16] 전도지



[그림 17] 크리스마스 씰

36) 익명의 심사위원, 심사평의 일부.

37) 정병준, 「호주 선교사 70. 에스몬드 월터 세실 뉴 목사 71. 앤 피츠로이 뉴 부인」, 『물길손길 블로그』, 2011.2.7.

38) [그림 16]은 셔우드 홀이 1939년 유영완에게 맡긴 씰의 도안이다.(셔우드 홀, 김동열 옮김, 『닥터 홀의 조선 회상』, 좋은씨앗, 2003, 553면.) 홀은 유영완에게 도안을 그리게 하고 씰의 안내서 「SWING DAY IN KOREA」는 직접 썼다.(신동규, 『일제 강점기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퇴치운동 연구—셔우드 홀 박사와 결핵예방 홍보 자료』, 경인문화사, 2020, 126면.) 단오의 유래를 설명한 「SWING DAY IN KOREA」에서는 춘향이가 그네를 타며 이도령의 눈에 띄는 장면을 양귀비가 왕자를 만나는 이야기로 교체해 놓았다. 조선의 판소리계 소설을 중국의 고사와 한데 섞어 이해하는 대목에서,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을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던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

유영완은 한글 궁서체, 한문 해서체, 영문 고딕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체를 구사하고 있는데. 한글과 한문 서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낙관까지 만들어 찍을 정도로 전도지 및 포스터, 씰 제작 과정에 공을 들였다. 본인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머문 6년간 관찰한 조선인의 복식, 주거 환경, 세시 풍속 등을 동양화풍으로 그려 색채를 입히고 다양한 서체를 쓸 정도로 재능을 보였다.

유영완은 이일래의 동요 가사에 맞춰 조선인의 복식과 주거 등의 생활 방식을 그림으로 전환하여 호주에 건네는 지식 전달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일래의 동요에 담긴 조선의 자연과 동식물의 특징, 생활과 놀이의 특징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조선에 대한 지식을 호주에 전달했다.[39] 마산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알리는 매체로 이일래의 창작 동요곡을 활용한 것이다. 때문에 이일래가 조선을 대표하는 동요 작가인지, 그의 동요가 조선의 대표성을 지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본인이 선교하는 지역이 마산이었기에, 그 지역의 창작물을 선교 본국인 호주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앤 뉴(유안례)의 영문 번역

『조선동요작곡집』에는 이일래를 비롯한 총 7명이 작사한 20곡의 동요와 〈시편(23)〉을 포함한 총 21곡이 수록돼 있다. 동요곡의 작사가는 주로 마산 출신 문인이거나 이일래의 지인이다. 이일래의 후배 이원수, 이원수의 부인 최순애, 이일래의 형 이광래, 집안 친척 이은상의 작품과 함께 김영찬, 이정구 등의 동요가 수록돼 있다. 이일래는 본인이 작사・작곡한 〈봄노래〉 〈산토끼〉 〈해바라기〉 〈봄〉 〈단풍〉 〈아침〉 〈병정나팔〉 〈다람쥐〉 〈반딧불〉 〈기러기〉 〈별과 달〉 〈집 떠난 제비〉 〈연〉의 13편, 이원수의 〈고향〉[40], 최순애의 〈오빠 생각〉[41],

39) 임경규, 「조선 개화기의 옥시덴탈리즘에 대한 소고」,『동서비교문학저널』20, 한국동서비교문학저널, 2009, 205-206면.

40) 마산 출신 이원수가 동시 「고향의 봄」을 창작하여 이일래에게 작곡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일래는 동요곡 〈고향의 봄〉을 작곡하여 본명 이부근으로『노래동산』창간호(통영, 1929.5)에 발표한다.

이광래의 〈엄마 생각〉, 이은상의 〈노고지리〉, 김영찬의 〈귀뚜라미〉, 이정구의 〈외딴집〉, 가극의 삽입 가사 〈달팽이〉로 작곡한 6편을 포함한 총 20편의 동요곡과 성경의 일부인 〈시편 23〉까지 총 21편을 작곡했다. 본문의 악보에는 한글 가사를 적고, 악보의 하단이나 옆 페이지에는 영문 번역문을 따로 수록했다.[42]

유안례는 조선에 머문 6년 동안 이일래에게 4년간 한글을 배우고 유치원에서는 1년 정도 일했음에도, 조선의 자연경관, 풍속, 어린이의 놀이 문화, 한글 의성어, 의태어 등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뉘앙스까지 섬세하게 영어로 옮기고 있다. 유안례는 내용의 전달에 초점을 두고 의역을 하고, 노래 가사의 리듬을 고려하여 의성어나 의태어를 반복했다. 유안례가 번역한 방식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번역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 후렴구의 의미, 계절별 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발화와 문답의 주체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구체화했다. [2] 가사의 리듬을 고려한 번역에서는 원문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영문 의성어를 삽입하고,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를 영문 의성어와 의태어로 교체했다.

(1)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번역

첫째, 〈다람쥐〉는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가 환기하는 의미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했다.

① 알밤 꿀밤 <u>땍대굴</u> 다람쥐가 <u>쪼르르</u>
② 가랑잎이 <u>팔랑</u> 다람쥐 눈이 <u>똥글</u>

황봉, 「동요 '고향의 봄' 最古 악보, 이일래 작곡」, 〈연합뉴스〉, 2011.6.1. 이후 〈고향의 봄〉은 홍난파도 작곡하고 〈오빠 생각〉은 홍난파와 박태준도 작곡했는데, 〈고향의 봄〉은 홍난파가 작곡한 곡으로 〈오빠 생각〉은 박태준이 작곡한 곡으로 널리 알려졌다.

41) 최순애의 「오빠 생각」(1925)과 이원수의 「고향의 봄」(1926년)이 『어린이』에 수록되면서 연이 닿게 되어 1936년 결혼한 이원수와 최순애는 마산에서 생활했다. 부부의 작품이 이일래의 작곡집에 수록된 데에는 마산 지역의 연고가 작용한 듯하다.

42) 〈시편(23)〉은 한글 제목 하단 오른쪽에 영문 제목인 "PSALM 23"을 써놓고 악보에는 한글 가사만 적고 영어 원문은 수록하지 않았다. 이일래는 마산문창교회 주기철 목사의 〈시편 23〉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오소운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직접 밝혔다. 오소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소운의 찬송가 블로그』, 2014.1.20.

③ 가을바람 우수수 다람쥐 귀가 쫑긋
④ 밤 한 톨을 물고서 다람쥐가 나무 위로 쪼르르

이일래 작요・작곡 〈다람쥐〉

이일래는 〈다람쥐〉에서 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다람쥐의 모습을 의성어와 의태어만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주어+의성어(의태어)' 구문으로 구성한 1-3행의 앞 구절에는 외부의 변화를, 뒷 구절에는 다람쥐의 변화를 담았다. 다람쥐는 밤이 "땍대굴" 떨어지자 "쪼르르" 달려가고, 가랑잎이 "팔랑"거리자 눈을 "똥글"하게 뜨고 바람이 "우수수" 불자 귀를 "쫑긋" 세우고, 바람 소리에서 비를 감지하고 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간다.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의 뉘앙스를 아는 독자는 외부의 변화를 감지한 다람쥐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독자는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안례는 한글 의성어, 의태어의 뜻과 뉘앙스를 모르는 영어권 독자를 위해 ①의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가 환기하는 의미를 ⓐ에서 영어 접속사와 서술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 ROUND AND RIPE THE CHESTNUTS FALL.
AND A CHIPMUNKS SCAMPERS DOWN
ⓑ **BUT** THE WIND'S GOES. SHOO-OO!
AUTUMN LEAVES'S ALL SCATTERINGS.
ⓒ CHIPMUNKS EYES GROW ROUND IN FRIGHT.
EARS PRICKED UP. THERE'S DANGER!
ⓓ **THEN** THE RAIN DROPS. PIT-PAT.
FALL UP THE TREE RUNS MY CHIPMUNK SADLY HOME.

유안례, 〈THE CHIPMUNK〉

①의 "땍대굴"은 ⓐ의 '떨어지다(FALL)'로, "쪼르르"는 '질주하여 내려오다(SCAMPERS DOWN)'로 번역하여 떨어진 알밤을 보고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서술했다. ②에서 바람이 불어 가랑잎이 "팔랑" 움직이자 다람쥐가 눈을 "똥글"하게 뜬 이유를 ⓑ에서 역접의 접속사 "BUT"을 통해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SHOO-OO!" 소리를 내며 낙엽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나뭇잎에 부딪친 바람의 "우수수" 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인 다람쥐의 모습은 ⓒ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운(EYES GROW ROUND IN FRIGHT. EARS PRICKED UP) 상태로 묘사했다. 원문에 없던 '위험을 감지했다(THERE'S DANGER!)'는 문장을 삽입하여 다람쥐가 눈을 똥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인 이유를 설명했다. ⓓ에도 원문에 없는 비 내리는 상황(THE RAIN DROPS)까지 추가하여 바람 소리가 비를 몰고 올 것임을, 다람쥐가 감지한 위험의 실체가 비였음을 밝힌다. 동요의 시작과 끝에 2회 나온 "쪼르르"는 ①에서는 알밤을 쫓아 '내려오고(DOWN)' ④에서는 비를 피해 집으로 '올라가는(UP)' 상황으로 서술하여 다람쥐가 알밤을 쫓아 나무에서 내려왔다가 비가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마무리했다. 원문에서는 '딱대굴, 쪼르르, 팔랑, 똥글, 우우수, 쫑긋, 쪼르르'와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병렬적으로 쌓아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반면 번역문에서는 'AND, BUT, THEN'과 같은 접속사로 바뀐 상황을 설명하고, 의성어와 의태어가 환기하는 의미를 서술어로 풀어 쓰고 새 문장을 삽입하여 영어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 한글 의성어, 의태어가 환기하는 의미를 직접 이해하기 어려운 독자를 위해 도착언어에 초점을 둔 의미 중심의 번역을 한 것이다.

둘째, 〈고향〉 〈기러기〉 〈오빠 생각〉에서는 후렴구의 반복의 의미, 새가 나는 형상, 계절별 새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여, 남반구 호주와 다른 북반구 조선의 계절적 특징을 환기했다.

〈고향〉의 1-2절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서술형 문장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는 감탄형 문장인 '오, 어리고 걱정 없이 즐거웠던 날(O. YOUNG CAREFREE AND GAY!)'로 번역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러기〉는 기러기들이 "열을 맞추"어 나는 모습을 '목을 우아하게 뻗은 화살촉(FLYING AS AN ARROW HEAD)'에 비유하여 그 형상을 구체화하고, "높이 우는" 기러기 소리가 "듣기 좋"은 것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기(MEMORIES AWAKENING MESSENGERS FROM HOME!)'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삽입해 놓았다. 〈오빠 생각〉에서도 뜸북새와 뻐꾹새는 '봄에(IN THE SPRINGTIME)' 울고 기러기와 귀뚜라미는 '가을에(NOW TIS AUTUMN)' 운다는 계절 정보를 삽입하고, 귀뚜라미가 슬피 우는 것은 '집을 찾기(SEEKING FOR A HOME)' 때문이라는

이유를 삽입하여 조선의 계절적 특징과 새의 상징적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1절의 뜸북새의 "뜸북뜸북" 소리만 "DEM-PUK, DEM-PUK"으로 음차를 하고 그 외의 "뻐꾹뻐꾹" "기럭기럭" "귀뚤귀뚤" "우수수" 등의 첩어는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했다. 예컨대 후렴구의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는 "AUTUMN LEAVES"로 번역하여 봄에서 가을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고, "우수수"를 "FALLEN, FALLEN DOWN"으로 번역하여 하강과 단절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에 "서울 가신 오빠"가 가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한글 가사에서는 뜸북새와 뻐꾹새,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환기하는 계절 정보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번역문에서는 영어권 독자를 위해 계절 정보를 추가해 놓았다. 첩어의 반복이 만드는 말의 리듬보다는 가사가 내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번역했다.

셋째, 가극의 삽입곡임을 고려하여 〈불이야〉의 발화 주체를 명시하고, 인물 간의 대화에도 문답의 주체가 모자임을 밝히는 방식으로 상황을 구체화했다. 가극『달팽이집』삽입곡인 〈불이야〉에서 발화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번역문에는 "불이야"라고 외친 주체가 달팽이며, "HA, HA, HA. IT IS THE SUN"이라는 대사를 삽입하여 저녁노을을 불이라고 속였음을 밝혔다. 발화 주체와 웃음소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연극적 상황을 입체화했다. 〈별과 달〉의 원문에는 문답의 주체가 없으나 번역문에는 "MOTHER. TELL ME" "LITTLE SON"과 같이 문답의 주체가 엄마와 어린 아들임을 밝히고 "반짝반짝(O. SO. BRIGHT)과 "둥글게 둥글게(O. SO. ROUND)"를 감탄문으로 번역하여 대화 과정의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

(2) 가사의 리듬을 고려한 번역

유안례는 한글 가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의성어를 추가하고, 의태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부연 설명해 놓았다. 한글 의성어, 의태어의 뉘앙스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선적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정황적 의미를 옮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

첫째, 〈산토끼〉 〈단풍〉 〈병정나팔〉에서는 한글 의성어, 의태어에 대응하는

영어 의성어, 의태어로 교체하여 원 가사의 반복에서 생기는 리듬을 살리고 의태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부연 설명했다. 〈산토끼〉에서는 "깡총깡총"을 "HOF-HOF ALPPITY-HOF, LOP-LOP LOFPTY-LOP"로 교체하고 〈단풍〉에서는 "멀리멀리 꼽박꼽박"으로 반복되는 첩어를 "THITHER, THITHER, TWISTINC, TWIRLINC. THEY FLY FAR AWAY"로 번역하고, 〈병정나팔〉에서는 나팔 소리에 "하나둘 하나둘 척척척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또또또 발걸음 맞추며 나가"는 모습을 "LEFT, RIGHT""TRAMP, TRAMP, TRAMP" "QUICK MARCH"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여 토끼가 뛰고 단풍이 떨어지고 나팔소리에 맞춰 걷는 모습을 구체화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생하는 정황을 부연 설명해 놓았다. 예컨대 〈산토끼〉의 "토실토실 밤송이 주우러 간단다"는 '풀밭에 숨어 있는 달콤한 둥글 밤을 찾는다(LYING HIDDEN IN THE GRASS SWEET ROUND CHESTNUTS SEEK)'로 번역하여 밤송이가 떨어져 '풀밭에 숨어 있'기에 주울 수 있고, "토실토실"한 밤 모양은 '둥글게 살이 올라 달콤한 맛'을 품고 있는 상태로 구체화했다.

둘째, 〈엄마 생각〉의 1절에서는 원문에 없던 송아지와 아기의 울음소리(MA-AH-MA, AH-OO, AH-OO)를 삽입하고 2절에서는 누이가 동생을 업은 채 송아지를 몰고 엄마 산소로 가서 풀을 뜯게 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엄마 없는 우리처럼 뻐꾸기도 '돌아갈 집이 없어서(HE LIKE US IS VERY LONELY HAS NO PLACE TO NEST)' 슬피 운다는 구문을 삽입해 놓았다. 송아지와 아기와 화자에게 공통된 엄마의 부재를, 돌아갈 둥지가 없어 슬피 우는 뻐꾸기의 울음소리로 구체화했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물과 동물이 상호 교감하는 외로운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셋째, 의성어가 환기하는 뉘앙스에만 주목하여, 조선의 새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번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침〉의 1절의 "해가 떴"음을 알리는 참새 소리 "짹짹짹(CHEEP, CHEEP-CHEEP)"은 즐거운 노래(CRY, SING)로 번역했으나, 2절의 "새날"을 알리는 까치 소리 "깟깟깟(KWA, KWA-KWA)"은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외침(CALL, SHOUT)으로 번역하고 '자는 사람은 서둘러 일어나라(THOSE WHO ARE SLEEPING, HURRY UP!)'는 구문까지

추가해 놓았다. 새해를 알리는 까치의 상징적 의미를 모른 채, 의성어의 뉘앙스에만 초점을 둔 데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핀바, 유안례는 동요 가사를 번역할 때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구문을 삽입하여 조선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의 특성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 한글 동요를 영어로 부르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조선 동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읽기 텍스트로 번역했다. 조선을 알지 못하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도착언어에 초점을 두고 번역한 것이다. 가사의 반복이 구현하는 리듬과 말소리의 효과를 직역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구어가 환기하는 뉘앙스와 의미를 부연 설명한 것,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모르는 독자에게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 새 문장을 삽입하여 의성어와 의태어가 환기하는 뉘앙스와 파생적 의미를 풀어 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유안례는 말의 효과와 리듬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영문 가사를 번역했기에 영어권 독자는『조선동요작곡집』의 영문 가사를 노래로 부르는 동요곡이 아닌 눈으로 읽는 동시 텍스트로 접하게 된다.

4. 결론

동요 운동은 1920년대 중반 시작되었다. 운동의 초창기부터 해외의 동요를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했으나 국내의 창작동요를 영역하여 해외에 소개한 것은 1930년대부터다. 1938년 호주 선교사 유영완은 낱낱으로 존재하던 이일래의 동요곡을 선별하여 악보와 삽화를 그리고, 부인 유안례는 동요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하여『조선동요작곡집』을 출간했다. 그림동요곡집으로 출간한 텍스트는 조선과 호주에서 동시에 판매했다.

『조선동요곡집』을 단행본으로 엮는 과정에는 마산 지역의 동요 작가, 작곡가, 문인, 국어학자뿐만 아니라 조선음악가협회, 기독교청년회 등의 단체가 함께했다. 이일래는 본인이 직접 작사한 13편을 포함한 21곡 전체를 작곡하고, 마산창신학교 교사이자 한글학자인 이윤재[43]는 한글 교정을 보며 표기의

43) 호주선교부가 설립한 마산창신학교에 안확, 이윤재, 김윤경 등의 국학자, 한글학자들이 교사로

정확성을 기하고, 작곡가 이흥렬은 반주부를 감수하여[44] 음악적 전문성을 갖췄다. 출판한 책은 국내의 기독교 서점[45]에서 판매했으며 초판본이 출간된 1938년 12월에는 "馬山基靑・音協主催"[46]로 이일래의 작곡기념식을 열었다. 기획 편집은 호주 선교사가 주도했지만, 텍스트의 생성 및 출간 과정에는 조선인 작사가, 작곡가, 국어학자, 시조시인, 음악가 들이 함께했다.

그럼에도 유영완 목사는 '저작 겸 발행인'의 자리에 동요의 창작자 이일래가 아닌 본인의 조선식 이름인 유영완을 적어 넣었다.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알리는 홍보지이자 선교 결과를 알리는 보고서로서 『조선동요작곡집』을 기획했기에, 저작자의 자리에 본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조선동요작곡집』의 출간을 기념하여 마산기독교청년회와 마산음악협회가 주최한 작곡기념회를 호주에 책을 런칭하는 행사로만 기억하는 것[47] 역시 『조선동요작곡집』을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호주에 알리는 선교 보고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판본을 경남노회 종교교육부에서 출간한 것이 결정적 단서다.

식민지시기 기독교계의 1세대 작곡가가 창작한 동요곡집은 주로 기독교계 출판사에서 출간했으나 편찬은 조선인이 전담했다. 평양의 농민생활사에서 출간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문창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강신명이 편찬하고, 경성의 아이생활사에서 출간한 『아기네 동산』은 잡지 『아이생활』에 삽화를 그리던 임홍은이 편찬했다. 반면 경남 종교교육부에서 초판본을, 경성의 기독교서회에서 재판본을 출간한 『조선동요작곡집』은 호주인 유영완이 편찬했다. 강신명은

재직하고 있었다. 이윤재는 마산의 창신학교, 의신여학교의 교사로 재직했다.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13면.

44) 김종문, 「남도의 예_향토 출신 예술인의 작품세계와 그 생애—이일래_상」, 『경남일보』, 1986.10.27.

45) "내가 1938년 처음으로 평양에 갔을 때 평양 유일의 기독 서점이었던 '인덕서점'에서 그해 첫 출판되었던 이일래(李一來) 선생님의 『조선동요작곡집』을 산 적이 있다." 박재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마음의 갈릴리』, 성실문화, 2002, 16면.

46) "오랫동안 온장(蘊藏)하야 두었던 리일래(李一來) 군의 심혈을 겸수하야 역작한 그의 동요작곡집 一부를 그의 료우(僚友) 선교사 미스타 뉴- 바마산교회 긔독청년회와 마산음악협회의 주최로 二十七일 오후 다섯시 석정(石町) 한양관에서 긔념식을 행키로 하엿다하며 회비는 매인 전 一원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8년 12월 28일.

47) Esmond W. New, *Ibid*, p.75.

조선의 주일학교 교사용으로, 임홍은은 조선 어린이를 위한 그림노래책으로 동요곡집을 편찬한 반면, 유영완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선교 본국인 호주에 알리기 위한 보고서로 동요곡집을 편찬했다. 때문에 이일래의 창작 동요로 만든『조선동요작곡집』의 저작 겸 발행인의 자리에 본인의 이름을 기입한 것이다.

세 텍스트의 편찬 목적은 다르지만, 가사, 악보, 삽화를 한데 모아 수록한 공통점을 보인다. 강신명이 주일학교 교사용 교본으로 편찬한『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분류한 장(chapter)이 시작되는 속표지에 한복과 서양 복식을 입은 어린이 그림을 삽입하여 간지 기능을 하게 했다. 임홍은이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용으로 편찬한『아기네 동산』은 연령대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지면을 구성했다. 그림만 배치하여 동물과 식물의 속성을 인지하게 하고, 동요 가사와 그림을 한데 배치하여 글자를 아는 어린이의 문해력을 돕고, 악보와 가사와 그림을 모두 수록하여 음악적 특징까지 이해하게 했다. 동화와 만화 장르에도 삽화를 그려 넣은 종합 그림책을 제공한 것이다. 반면 유영완이 선교 보고서로 편찬한『조선동요작곡집』은 악보에는 한글 가사를 적고, 악보 하단이나 옆면에는 영문 가사와 그림을 배치했다. 인물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다. 조선의 동요를 호주에 소개하는 책자이자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호주에 알리는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조선의 복식과 주거 및 자연 환경을 세밀하게 그린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의 기독교계 출판사는 주일학교 교사용 텍스트를 발행하고, 어린이들이 쉽고 편하게 동요를 접할 수 있는 멀티 텍스트로서의 그림동요 동화책을 출간했으며, 조선의 동요곡집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로 보급했다. 조선의 어린이를 위해, 주일학교 운영을 위해, 조선에서의 선교 결과를 선교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출간한 다양한 형태의 동요곡집은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선의 동요운동이 대중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1936-1938년 출간된 강신명, 임홍은, 이일래의 그림동요곡집은 노래 가사와 악보와 그림을 한데 수록한 점에서 해방 이후 글과 노래와 그림이 한데 모인 종합 텍스트로서의 동요곡집이 발간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자료〉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평양: 농민생활사, 1936.
고장환, 『세계소년문학집』, 경성: 박문서관, 1927.
문병찬, 『세계일주동요집』, 경성: 영창서관, 1927.
박태준, 『뜸북새』, 경성: 아이생활社, 1932.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 馬山: 慶尙老會 宗教教育部, 1938
_____, 『조선동요작곡집』, 京城: 大韓基督教書會, 1939.
임홍은, 『아기네동산』, 경성: 아이생활社, 1938.
정순철, 『참새의 노래』, 경성: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 1932.
홍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하, 경성: 연악회, 1929・1933.

〈언론기사〉

「馬山예수教會는 朝鮮예수교長老教會를 이탈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하고 教會 獨立을 선언하다」, 『동아일보』, 1928.1.18.
「李一來作曲記念式 馬山基青・音協主催」, 『동아일보』, 1938.12.28.
「이 노래 産室 昌寧 梨房國校서 「산토끼詩碑」건립 除幕」, 『동아일보』 1978.12.26.
「第2回 男女學生基督教青年會 聯合夏令會 開催건 報告」, 『學生盟休에 關한 情報綴』, 京東警高祕 第1357號 1, 1928.8.31.
전정희, 「암울한 시대 태어난 '산토끼' 민족 계몽의 심장을 깨우다」, 『국민일보』, 2021.6.4.
김종문, 「남도의 예_향토 출신 예술인의 작품세계와 그 생애—이일래_상」, 『경남일보』, 1986.10.27.
_____, 「남도의 예_향토 출신 예술인의 작품세계와 그 생애—이일래_하」, 『경남일보』, 1986.11.3.
황봉규, 「동요 '고향의 봄' 最古 악보, 이일래 작곡」, 『연합뉴스』, 2011.6.1. (https://www.yna.co.kr/view/AKR20110601147500052)

〈블로그〉

대한기독교서회 홈페이지 (https://www.clsk.org/history.php?bo_table=intro)
오소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소운의 찬송가 블로그』, 2014.1.20. (https://blog.daum.net/geun1634/search/%EB%82%98%EC%9D%98%20%EB%AA%A9%EC%9E%90)
옥성득, 「이약신 목사 생애 1, 1937년 호주방문까지」, 〈옥성득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 (https://koreanchristianity.tistory.com/975)
정병준, 「호주 선교사 70. 에스몬드 월터 세실 뉴 목사 71. 앤 피츠로이 뉴 부인」, 〈물길손길 블로그〉, 2011.2.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bjoon63&logNo=30102261206)
한국문학관협회, 「동요 '산토끼'가 수록된 『조선동요작곡집』(영인본, 1975년)의 저자 이일래 동요 작사・작곡가(1903-1978)」, 〈창원 경남문학관〉, 2020.7.29. (https://m.blog.naver.com/munhakwan/222045021711)
Steve Eather, 'New, Esmond Walter (1900–1982)',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National Centre of Bi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2.
(https://adb.anu.edu.au/biography/new-esmond-walter-14986/text26175)

〈논문〉

금수현,「동요 '산토끼'의 주인공 이일래 옹」,『월간음악』51, 월간음악사, 1975.2.
김봉희,「이일래 동요 연구」,『지역문화연구』3,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8.
육영수,「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 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1890년대」,『역사민속학』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이 숙,「게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공동 번역자로 활동한 이창직」,『기독교 사상』729, 대한기독교서회, 2019.
이지연,「이일래의『조선동요작곡집』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0.
이향순,「미국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확장」,『선교와 신학』12집,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연구원, 2003.
임경규,「조선 개화기의 옥시덴탈리즘에 대한 소고」,『동서비교문학저널』20, 한국동서비교문학저널, 2009.
한강희,「내한 선교사들은 정말로 오리엔탈리스트였나?」,『선교와 신학』46,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연구원, 2018.

〈단행본〉

박재훈,『내 마음의 갈릴리』, 성실문화, 2002.
백낙준,『백낙준 전집 1_한국 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95.
신동규,『일제 강점기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퇴치운동 연구—셔우드 홀 박사와 결핵예방 홍보자료』, 경인문화사, 2020.
정병준,『호주 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昌信 90年史』, 마산: 창신 90년사 편찬위원회, 1998.
셔우드 홀, 김동열 옮김,『닥터 홀의 조선 회상』, 좋은씨앗, 2003.
앨런 알렉산더 밀른, 어니스트 하워드 쉐퍼드, 박성혜 옮김,『곰돌이 푸 초판본 WINNIE-THE-POOH』, FIKA, 2022.
에디스 커・조지 앤더슨, 양명득 편역,『호주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 1889-1941』, 동연, 2017.
에스몬드 뉴, 양명득 편역,『호주 선교사 찰스 맥라렌』, 동연, 2019.

The Messenger 편집부, *The Messenger*, Australia, 1939.10.20.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Extracts from the Records of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Vol. 25,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 1939.
Edith A. Kerr, *(The)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경건, 2015.
Esmond W. New, *Not a Dull Moment*, Ocean Grove, Vic., 1978.
Music by Illay Lee, English by Anne New, Illustrated by Esmond New,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 Masan, Korea: Kyung Nam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38.

【Abstract】

Christian Missions and Children's Song's Translation
: Focused on Lee Illay's『朝鮮童謠作曲集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1938)

Kang, Young-Mi*

『朝鮮童謠作曲集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1938) was written and composed by Illay Lee, a Korean, and illustrated by Rev. Esmond W. New (柳永完), an Australian missionary, and his wife, Annie Fitzroy McNair. New (柳安禮) is a collection of nursery rhymes published in a collaborative way to translate lyrics. In line with Illay Lee's original song, the Australian missionary couple published illustrations depicting the scenery, customs, and dress characteristics of Joseon, and translated Korean onomatopoeic words and meanings evocative of them into English.『朝鮮童謠作曲集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is a collection of nursery rhymes created for children in Joseon, a report to inform Australia of the missionary activities in Joseon to Australia, where Australian missionaries are missionaries, and a promotional material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Ali was a cultural translation.

『朝鮮童謠作曲集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1938) was published for domestic and foreign readers.『아동가요곡선 삼백곡 The Children's Song Collection 300』published by Shin-Myeong Kang was made for Korean Sunday school teachers.『아기네 동산 Children's Garden』, compiled by Lim Hong-eun, contained illustrations, poems, nursery rhymes, fairy tales, and cartoons for children of Korean. The three texts show differences in the target audience. In the 1930s, Christian publishing houses such as Farmer's Life, Children's Life, and Chosun Christian Books published children's song collections with a diverse audience in mi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publication of various types of children's songs, and paving the way for the distribution of children's songs in Joseon abroad. did.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publish a children's song book as a comprehensive text that combines writing, pictures, and songs after liberation.

Keywords: Lee Illay, Esmond W. New, Annie New, Australian missionary,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 illustrations, translation.

접수일: 2022.09.24.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 of Korean Studies, Korea Univ.